

“도의회 인사권 독립 현주소 아닐지 불안”

도 공무원노조 도의회사무처지회, 6급 이하 직원 부당 전출 관련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 지회가 4일 최근 발생한 의회사무처 6급 이하 직원 부당전출 인사행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의회사무처 지회는 최근 전북도청 6급 이하 전보인사와 관련해 갑질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부당한 전보인사가 이뤄지고 있어,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과 의회사무처 지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날 관련 기자회견을 예정했다.

이번 사태를 의회사무처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출입 추천서에 당사자들의 동의나 희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6급이하 3명을 전출시키려고 한 인사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더욱 황당한 것은 지난해 12월 30일 야간에 총무담당관이 본인의 연가 중임에도 오후에 출근해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전출입자 명단에 직인을 찍어 밤 9~10시 경에 전북도청 인사팀에 제출했다는 점이다.

피해 당사자는 모두 총무담당관실 소속으로 언제든지 해당 과정(총무담당관)이 사전에 의사를 물어볼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지도 묻지 않은 채 연가 중에 출근해 독단적으로 이미

확정된 전출자 명단에 피해 당사자 3명을 포함해 제출한 것으로, 일방적인 직무관할을 넘어선 행위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의회사무처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담당관이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상재)을 찾아 해당 인사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에, 의회사무처 지회는 “부당한 인사가 철회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의회사무처 지회 조합원들은 이러한 인사행위가 향후 도의회 인사권 독립의 현주소는 아닐지 매우 불안한 상태”고 언급했다.

이어,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송지용 의장의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갑질로 전북도민에게 사과 발언을 하고, 전북공무원노동조합-의회사무처지회-전북도의회가 공동으로 갑질 근절을 위한 상호실천협약을 지난해 12월 13일 체결했다”면서 “당시 갑질 피해자는 물론이고,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의회가 책임질 것 또한 협약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무담당관은 그동안 의회사무처 인사와 관련해 모두 의장의 뜻이라며, 이러한 독단적인 인사를 행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의회사무처 지회는 의장 갑질에 따른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회가 상호존중 실천협약을 한 지 20일이 지났음에도 의장의 독단적인 인사 근절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의회사무처 지회에 의견조차 묻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 지회는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상호존중 협약이 파기된 것으로 보고, 갑질 신고는 물론이고, 강력한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명백히 밝혀 두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에도 요구한다”면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상호존중 협약 미이행에 따른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조합원에게 즉각 공개하고, 투표결과에 따른 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인 김윤덕 의원은 4일 민주당 당사에서 최근 구성된 조직혁신단 지역별 단장 임명식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탄탄한 조직구성을 완성했다.

지역 민심-민주당 연결 ‘징검다리’

김윤덕 의원, 지역 단장 임명식 이재명 대선후보 조직구성 완성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인 김윤덕 의원은 4일 민주당 당사에서 최근 구성된 조직혁신단 지역별 단장 임명식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탄탄한 조직구성을 완성했다.

이번 조직혁신단 구성은 아직 선대위 조직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전국 각지의 조직과 참신한 인물들이 참여하는 선대위의 숨은 일꾼들로 구성했다.

조직혁신단은 전국 시도에 본부를 두고 각 지역별 지지자 결집 및 맞춤형 정책 발굴 등을 통해 곧바로 민주당 선대위에 대선공약을 건의하는 등 살아 움직이는 사람 중심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중앙당과 도당 선대위의 역할, 권한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실제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앞으로 조직혁신단은 각 지역별로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인 김윤덕 의원은 4일 민주당 당사에서 최근 구성된 조직혁신단 지역별 단장 임명식을 가진 가운데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재명후보 지지자의 핵심 역할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첨병으로서 이재명 후보와 민심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도 수행한다.

김윤덕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조직혁신단이 가진 자발적 에너지를 통해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 태생 할 수 있도록 더욱 결속하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혁신단이 참신한 에너지 발산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호상 기자

경제분야 정책 전문성·중앙 정치력 ‘인정’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 민주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정책본부’ 부분부장에

이재명 지지 투표 독려 출범 ‘희망 달구지’ 서도 본격 역할... 품남문 일대 찾아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분부장에 임명됐다. 정책 재창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선거의 전략 중 핵심인 ‘정책’ 구상·개발 등에 힘을 보태게 된 것으로, 조 전 경진위원장의 당사에서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4일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분부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선대위 정책본부 사령탑은 당내 대표적 기획통이자 경진캠프 때부터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총괄해 온 3선의 윤후덕 의원이 맡고 있다. 수석 부분부장은 윤동수·김성환·김성주 의원이, 부분부장은 양이원영·이용우·정일영·홍성국 등 정책 전문 국회의원 다수가 포진했다.

정책본부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책성이자 향후 국가의 방향과도 같은 정책 및 공약, 각종 이슈 대응 등을 총괄하기에 중요하다. 그만큼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기본으로 정치력까지 두루 갖춰야만 맡을 수 있는 자리다. 이로 인해 지역 내에서는 조 전 경진위원장이 정책 부분장을 맡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책 전문성을 중앙에서도 인정 무엇보다 당내에서 입지는 물론 활동력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조 전 경진위원장이 정책 부분장으로 임명된 데에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핵심 인사의 추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유봉산업발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내며 경제의 흐름을 바꾸고 상생을 시대정신으로 만든 추진력과 탁월한 기획력을 통해 현장 맞춤형 경제 정책을 마련·추진해 온 그동안의 성과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앞으로 민

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윤후덕 정책본부장과 수석 부분부장들을 도와 이슈가 되는 정책 및 공약, 각종 이슈 등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제 분야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정책 발굴에 집중하는 한편 전북도청과 함께 지역 맞춤형 공약 발굴에도 역량을 쏟겠다는 복안이다.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당면 과제인 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정책에 충실히 녹여 내겠다”며 “정책 재창출을 위해 많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장 선거 역시 정책 대결 구도로 주도하기 위한 긴장의 끈 또한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지훈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투표를 독려하고자 출범한 ‘희망 달구지’에서도 본격 역할을 하게 된다. 희망 달구지는 지난 1일 출범식을 갖고 전국 순회를 시작, 3일 전주시 품남문 일대를 찾은 바 있다.

김윤성 기자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도내 인사들이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복당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민주 탈당 전북인사들 “이재명 대선 승리 앞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복당... “전북발전 비전 마련 차기 민주정부 출범토록 힘쓸 것”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정치권 인사들이 4일 복당 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를 비롯해 고상진 민선당장 전북도당위원장 권한대행, 조형철 전 도의원 박용근 현 도의원, 이상일 전 도의원 김희수 전 도의회의장 정진숙, 최인정 전 국민의당, 박재완 전 도의원 진희완 의원, 서동석 교수 등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의 대통합 철학이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3월 9일

대선에서 이 후보의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민주개혁 진영이 한때 분당 사태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복당은 필연적”이라며 “이는 강물이 크게 하나로 모이는 이치와 같다”고 복당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을 떠났던 유권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시 민주당으로 모셔오는 역할을 우리가 맡을 것”이라며 “전북발전의 비전을 마련해 이재명 민주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들과 함께 참석한 김관영 전 국회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을 찬성한 이후 전직 국회의원들의 입당에 이어 오늘 같은 뜻을 가졌지만 다른 길을 걸었던 민주개혁 진영 동지들이 다시 민주당에 복당하게 됐다”면서 “피땀 흘려 반야를 지킨 민주당의 당원동지들과 도민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선 승리를 통해 대전환시대 공정 성장을 이뤄내고, 낙후된 전북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호상 기자

신영대 의원, “군산 잠뽕거리, 전선지중화 확정”

군산시 ‘잠뽕투박거리’에 대한 전선지중화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은 군산시 잠뽕투박거리가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도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구간은 군산시 장미동 군산잠뽕투박거리 일대 500m 구간

으로 오는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총 사업비 8.6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확한 공사비는 협약 체결 후 실시 설계와 상세설계를 거쳐 산출된다.

해당 구간은 군산 구도심의 상가 밀집지역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통해 전선주와 통신투를 제거하고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게 되면, 보행자의 통행 불편 해소 및 교통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호상 기자

민주 ‘대한민국 대전환 문화강국 전북’ 출범

문화예술이 꽃피는 나라 이재명은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선대위 문화강국 전북위원회가 4일 출범했다. 이번 선대위에는 대한민국대전환 선대위 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인 도종권 화백, 전북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으로는 문운걸 예원예술대 교수, 박원환 전북독립영화 이사장 박윤희 우리소리 아예현 대표, 송재영 (사)전주대사슴놀이 보존회 이사장 양진성 국가예능보유자 최동현 전 군산대학교 교수, 최영기 전주대학교 교수를 선임했다.

공동위원장으로는 김부선 전북생활문화연합회장, 김종연 목조각장, 박종대 (사)타악연희원회 대표, 백정민 영화감독, 소하 소하무용단 대표, 영광옥 (사)보훈후용예술협회 전북도지회장, 이기홍 현대미술관장 이재원 (사)이름 대표, 정진기 (사)천년의소리 대표, 조창기 성악가, 사무차장엔 강현근 (사)전북문화마을을 사무차장을 선임했다.

문화강국 전북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선대위 문화강국 전북위원회가 4일 출범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각종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아젠다를 제시해 새로운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며 “전북도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예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각종 현안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고,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위원회는 또 “이를 위해 하나로 뜻을 모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하고, 문화예술 관련 비전과 정책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선 이후에도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문화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아젠다를 만들어 내고,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예술인 기본소득, 보편적 문화복지 확대,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진흥, K-문화예술의 현장 활동가 및 향유자들을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호상 기자